



병원사목에 있어서의 수녀의 할일

≡ 병원전교의 이모저모 ≡

대구파티마병원 김 스테파니아 수녀

“아무리 빛나는 교회사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선포를 최종목표로 삼지 않는다면 사업을 위한 사업은 될지 몰라도 교회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으리만치 교회는 본질적으로 복음선포의 사명을 지니고 있다”라고 윤 공회 주교님께서 전교의 달 10월 경향잡지에 하신 말씀을 읽었을 때 무엇인가 모르게 마음 속 깊이 스스로의 입장을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겠다는 충동을 받았습니다. 제 자신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한 6개월 전부터 우리 수녀원 병원에서 분에 넘치는 전교수녀라는 명칭을 갖고있는 입장에서 윤 주교님의 말씀은 저를 잠에서 일깨워주는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가톨릭 병원협회의 세미나를 위해 글을 하나 써 보내야한다는 병원장수녀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오랜 세월 병원전교를 하셔서 경험이 많으신 선배 수녀님들에게 한번 경험담을 듣고 싶어하는 주제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요. 지난 여름 서울 성모병원 원목신부님께서 우리병원에 오셨을때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는 한번 성모병원을 찾아 가서 좀 여러가지 배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미 받은 부탁이니 별로 신통치 않은 얘기라도 해 볼까 합니다.

저는 본시 6·25 동란때 1·4 후퇴로 인해 부산으로 내려갔을때 15 육군병원에서 약 10개월 여러 수도회 수녀님들과 합숙하며 부상병들에게 전교를 한 경험이 있을 뿐이고 그후는 이곳 저곳 분원생활을 하다가 금년 봄에 본원인 대구수녀원에 돌아와 큰 수술은 아니지만 발 수술을 하게 되어 약 2개월을 쉬게 되었지요. 그러는 중 하루는 수녀님께서 이제 환자 노릇도 해 보았으니 병원에서 전교를 좀 했으면 좋을 것같다고 하시지

않겠어요.

처음 병실을 기웃거리려니 멋적기도 하고 공연히 쑥스럽기도 하여 그전에 일하시던 수녀님들을 좀 따라 다닐걸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본시 우리 병원에는 3년 전만해도 훌륭한 전교수녀님이 계셨답니다. 그리소스 토마스수녀님이시라고 독일 분이신데 이 수녀님은 우리 성 베네딕도 수녀회가 한국에 처음 진출하던 1927년에 나오신 수녀님들 중의 한분으로 원산 수녀원이 해산될 때 북한 자강도 옥사독이라는 곳에 강제로 끌려가 수난을 당하시고 고국인 서독으로 송환된 후 다시 한국에 나오셔서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전교를 하셨지요. 젊어서는 다재다능하셔서 국민학교의 교장도 하시며 한국어는 물론 한자도 3000자를 아셨지요. 그 독일인 특유의 불굴한 신앙으로 영혼에 대한 열심이 언제나 활활 타고 계신 분이였지요. 1968년 독일 모원으로 돌아가셨는데 지난 9월 12일 영원한 고향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얘기가 열 길로 흘렀군요. 차츰 병실 문을 열고 “안녕히 주무셨어요?” “밤동안 많이 피로우셨지요?” 이렇게 인사를 던지면 고통에 시달려 쟁그런 얼굴에서도 약간의 미소가 번져 갈때 제 마음에도 용기가 스며들게 되더군요. 이상한 옷차림으로 웃음으로 대해주는 수녀로인해 무언가 기분전환과 안정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를 환자에게뿐아니라 보호자들에게서도 듣게 되었지요. 수도복 그 자체가 전교의 커다란 매개체가 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정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하루는 어느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완전히 의식불명인채 입원을 했어요. “절대 안정”의 팻말을 걸어 두었으

므로 보호자를 통해 경과를 듣거나 잠깐 주무실 때 용태를 살폈지요. 일마후 아주 병세가 호전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으나 환자가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고 보호자도 가끔 복도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방문을 삼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다른 병실에서 그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의 제자가 그 병실에 입원하여 문병을 오신 것이었어요. “이렇게 회복되셔서 참 기쁩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그 인사에는 아랑곳없이 즉시 일어나시며 “나는 수녀들만 보면 질색이야”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한즉 3년전 이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그때 여기 입원한 관계로 자기 딸이 그만 수녀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수녀를 보기만하면 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의식이 있었으면 수녀병원이라고 입원을 거절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지금은 완치되어 퇴원하셨고 그 동안에도 따님되시는 수녀님이 여러차례 문병도 오셨지요. 그 가족중에도 아직 아무도 신자가 없고 수녀님 혼자서 영세받고 수녀원에 가셨다니 참 대조적인 현실이지요. 이런 경우엔 수녀의 병원 전교가 극약같은 것이 되겠지만 복음의 기쁜소식을 전하는데 미약한 인간의 힘보다 하느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깨닫도록 해 주시기 위함이며 우리의 기도와 회생을 요구하심을 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우리 병원은 현재 120명 정도 수용할 수 있고 보통 매일 90여명의 환자를 상대하게 되는데 물론 시간의 부족도 느끼지만 서적에 대한 부족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얘기를 하고 싶어하지만 어떤 환자들은 듣고 싶어하지요. 제한된 시간에 여러 환자들의 요구를 다 채워줄 수도 없고 또 대화에서 낼 수 없는 또 다른 결실을 서적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경환자들의 병실에선 한 사람에게 시작한 얘기가 전체 4명 혹은 6명 모두 귀를 기울이고 질문도 하는 식으로 번지기도 하지요.

병실 방문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 사이. 오후에는 면회시간이 끝난 후 좀 조용해진 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로 대세받고 어느 정도 회복된 환자에게 교리어리를 해 주지요. 그렇게 되면 그 부근의 환자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관심도를 표명해주어야 하는데 가끔 시골

사람들은 저를 붙잡고 자기네 환자의 상처를 보여주며 “이렇게 중한 수술을 받은 내아들이 살아나겠소?” 할때는 딱하기도 하지만 위로해 “드리는 것도 큰 본분인것 같습니다. 어디서나 같겠지만 병원에서의 전교도 역시 가난한 자 쉽게 복음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보다는 낙타가 바늘 구멍을 빠져 나가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요.

입원환자 중에 신자가 있을 경우 환자가 원하고 환자의 병세가 허락하면 매일 봉성체를 하게 합니다. 움직일 수 있으면 병원 성당으로 나오고, 아니면 신부님께서 병실로 가십니다. 열심히 신자들은 이런 은혜를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퇴원할 때 “이번 나의 병은 하느님의 은혜로운 선물이었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가름에 콩나듯 일년에 두어차례 성당에 가던 신자였는데 아침마다 성체 모시고 병실로 갈때 울리는 종소리에 양심을 가눌 수 없음인지 입원 2-3일후 판사람의 얘기하듯 시작하더니만 결국 성사도 보고 육신과 영혼을 함께 치료하여 퇴원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종소리가 복음선포의 매개체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 병원에는 신부님이 따로 계시지 않고 수녀원의 신부님께서 매일 수녀원미사후 즉시 병원의 봉성체를 해 주시고 주일에만 병원에서 미사를 한때 드리십니다. 우리 지 신부님은 지금 회갑을 지내신 노인이시지만 노익장하시고 열심에 불타는 독일 신부님이랍니다. 시간 있으시면 환자 방문도 가끔해 주시길요. 그리고 한 주일에 한번씩 병원 직원을 위한 교리시간이 있는데 얼마전까지 이 갑수 신부님이 수고해 주셨는데 부산으로 가시게 되어 지금은 김 영환 신부님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금년 봄 우리 병원 선생님 7명과 대학병원 선생님 2명 이렇게 아홉분이 영세를 받게 되어 모두 함께 기뻐했지요. 간호원들은 원하는 사람에게 간호과장 수녀님께서 교리지도로 하시지요. 이제 보잘것 없는 저에게 이렇게 큰 사명을 맡겨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주님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는 많은 봉사자들이 속출하기를 기대하면서 두서없는 글을 마칩니다.